

전북 바이오기관 협력의 장 열려

바이오진흥원, 제2회 전북 바이오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바이오 기관의 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북 바이오포럼 제2회 행사'가 2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서 개최됐다.

'전북 바이오포럼'은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전북 지역 바이오 기관 간 상호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 홀수 월마다 순환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3월 제1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해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등 도내 주요 바이오 기관장 및 실무

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관별 협력과제 공유, 생명연 전북분원의 주요 연구시설 투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생명연 전북분원의 연구 인프라를 직접 둘러보고 전북분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에 위치한 생명연 전북분원은 △ABL 2/3등급 생물안전시설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연구, △미생물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생물자원센터(KCTC), △재생의학 및 백신 연구를 위한 영장류자원지원센터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항바이러스 치료제 전임상 평가, 생물자원 확보·보존, 국가 연구용 영장류 자원 지원 등 국가 바이오 R&D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



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명연이 추진 중인 국가 바이오 전략과 미래 연구 방향도 함께 공유됐으며,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각 기관이 보유한 고유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동과제를 발굴해 지역 주도의 바이오 사업으로 기획·확산하며 국가사업으로의 연계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은 전북권 기관

들과의 공동연구 및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 포럼은 기관 간 단순한 정보교류를 넘어 실질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전북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개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본격화

중기중앙회-중기벤처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개발 협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주현 중기벤처연구원장 및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와 국책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데이터 결합에서 정책개발 연구까지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의 데이터플랫폼 활용 정책 연구 △중앙회 데이터플랫폼 구축 지원 △디지털·데이터 교육, 포럼 공동운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데이터에 기반한 세심하고 객관적인 정책아발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번 협약은 그간 긴밀히 협력해 왔던 양 기관이 처음으로 체결하는 MOU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벤처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양 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개발부터 성과 분석, 디지털 리더십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여름배추 맞춤 '토양 기준

설정'으로 수급 안정 꾀한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준고랭지 여름배추 재배에 적합한 토양 기준을 설정하고,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여름배추 재배 예정 농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육에 영향을 주는 토양 특성을 설명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매년 여름배추 수급 불안정으로 농가는 물론 소비자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농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윽고 "농촌진흥청은 준고랭지에서 여름배추를 문제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토양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배추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600미터 이상 고랭지의 여름배추 생산량이 기후변화, 이어짓기(연작) 장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400~600미터 준고랭지 여름배추 후보 재배지의 토양 특성과 예상 수확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준고랭지 여름배추 맞춤 토양적성등급을 설정하고, 준고랭지에서의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중기부·환경부·산업부, 산업계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종합안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싱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정책도 현장의 기업이 체감하고 참여할 때 실현된다"라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대배출 업종의 녹색 전환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 과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금용자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정책도 현장의 기업이 체감하고 참여할 때 실현된다"라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대배출 업종의 녹색 전환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 과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금융 보안·중소기업계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속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보안 해법 모색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금융 보안 및 중소기업계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실무적 해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등 대규모 해킹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계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계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와 보안 위협 트렌드'(정진영 금융보안원 수석)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위협하고 있는 고도화된 보안 위협 트렌드에 대해 짚었다.

이어진 세션 '중소기업계 정보보호 대응 전략 및 과제'(채승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전략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정기총회·세미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내지역 중소기업CEO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내 중소기업체 CEO들로 구성된 전북은행 비즈니스 클럽은 2003년에 창립, 올해로 21회째 총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회원들 간 친목뿐만 아니라 클럽 활동에 공지와 자부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사 및 공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 지역 내 최고 명문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비즈니스클럽 회원과 전북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홍준 교수를 초청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 참석자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백종일 은행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전북은행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비즈니스클럽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동반과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기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